

부엌의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선택들

함 한 희*

I. 머리말	V. 현대성의 이미지: 과학과 입식부엌
II. 부엌에 관한 기존연구의 검토	VI. 모던리빙이 의미하는 것
III. 근대화와 생활개선운동	VII. 맺는말: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IV. 도시화규격화대량화	

I. 머리말

한국의 가옥에서 부엌은 지난 20세기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 공간의 구조에서만 아니라 식생활과 주생활이 변하면서 부엌의 기능도 달라지게 되었다. 아울러 한국인들이 부엌에 대해 가지는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의 전통적 식생활에서는 음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부엌에서 음식의 기본적인 조리과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언제라도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당이나 방 그리고 마루로 쉽게 옮겨다니며 음식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전 집안의 부엌화라고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니었다. 이것은 가옥 안에서 공간의 기능 구분이 엄격한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의 현대식 가옥에서는 각 공간의 기능적 구분이 점차 뚜렷해져서 서로

* 전북대학교, 인류학

의 침범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부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음식준비를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확장하기 힘들게 되었다. 현대의 부엌에서는 용어의 사용도 달라졌다. 부엌 대신에 주방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주방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더 현대적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부엌은 현대화를 향해 변화를 거듭해 왔다. 과학적 기술의 발달과 상업주의가 그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역사적인 방법을 사용해 부엌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요즘은 농어촌에서도 재래식 부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주택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 마을마다 주택신축과 개축이 한창이어서 현대식 구조를 갖춘 주택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도시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단독주택의 점유율을 앞지르면서 현대식 주생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의 현대화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부엌공간과 부엌생활에서 일어난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화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간략하게 말한다면, 한국에서 주생활의 현대화는 서구화를 의미한다. 서구가 이룩한 현대의 주거양식을 모델로 해 한국의 주거양식이 변화했다. 부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각종 과학기술의 발달이 부엌의 물리적인 구조와 일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어난 부엌의 현대화가 서구의 것을 그대로 모방해 이룩된 것은 아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주거문화가 일방적으로 버려지고 서구적인 현대의 주거양식이 그대로 채택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은 부엌이 만들어지기까지 전통과 서구적 현대가 서로 부딪치면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선택적 과정에 대해 좀더 알아보아야 하겠다.

II. 부엌에 관한 기존연구의 검토

지금까지의 부엌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정학, 건축학, 그리고 민속학 분야에서 다루어왔다. 적지 않은 분량의 연구가 각 분야마다 축적되어 있다. 분야마다 관심도 다르고 또 연구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부엌이라고 하는 동일한 주제에 접근해 나온 결과도 조금씩은 다르다. 건축학에서는 부엌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분석과 그 변화

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부엌과 다른 주거공간의 관계라든가 그 공간적 형태 변화에 주목하게 된다.¹⁾

가정학에서는 부엌이 하나의 중요한 생활공간이므로 식생활 주생활 및 관련된 부엌의 특성과 시설, 부엌의 관리 및 이용방법과 개선 따위를 연구의 주제로 삼고 있다.²⁾ 민속학에서는 전통적인 주거공간의 관심에서 출발해 민속자료로서의 부엌의 구조, 시설, 및 생활전반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부엌의 지역적 차이라든가, 신분이나 계층에 따른 차이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각각의 특징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다.³⁾ 예를 들면, 부엌의 구조나 시설 등이 북부와 중부 그리고 남부지방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준다. 또 양반의 가옥과 일반 서민들의 가옥의 특징적 차이도 상세하게 조사되어 있다.

지금까지 부엌에 관한 연구는 주거공간으로서 물리적 형태변화나 내부시설의 변화 등을 알아보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 방면에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부엌이 사람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루어진 부엌생활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현상은 부엌과 그 공간의 주체를 연결하는 데 관심이 적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부엌의 변화를 다루는 경우에도 부엌에서 실제로 일하는 여성의 입장에 주목하면서 그 변화를 다루지는 않았다. 다만, 부엌과 부엌일을 떠올리면 여성들의 고된 노동과 직결시켜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 1) 강영환, 『집으로 보는 우리 문화이야기』(웅진닷컴, 2000); 김용집, 「한국전통주거건축의 공간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유영희, 「근대화과정에서 전통한옥 주거양식의 변화과정」, 『서울학연구』, 7(1996); 윤일이, 「한국전통주거에 있어서 부엌의 배연구조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주남철, 「이조 말부터 1945년도까지의 한국의 주택변천」, 『한국건축학회지』, 14:38(1970); 「한국의 전통적 식생활공간」, 『한국식문화학회지』, 2:2(1987).
 - 2) 김분옥 외, 「우리나라 주부의 부엌관리술」, 『대한가정학회지』, 1968년; 윤복자 외, 「농촌주택의 부엌 공간 변화에 따른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89년; 「한국주거형태 변천과정에서 본 주거학의 생태학적 개념정립-제1부 부엌변천」, 『대한가정학회지』, 1990년; 윤복자 외, 『부엌총서; 한국부엌의 역사』(주식회사 한샘 학술연구비 수혜연구, 1994); 이현정, 「도시주택의 부엌유형 분석」(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지순 외, 「농촌부엌의 개선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2)」, 『대한가정학회지』, 1991년.
 - 3) 김광연, 「정읍 김동수씨 고가옥」, 『민속자료 조사보고서』, 제29집(문화재관리국, 1971); 『한국의 부엌』(대원사, 1997); 장보웅, 『한국의 민가연구』(보진출판사, 1981); 정영길,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민간신앙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조성기, 「한국남부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물론 예나 지금이나 여성의 부엌일이 가장 힘든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통계적으로도 주부의 가사노동 가운데 식사 준비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시점에서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이 주부들에게는 가장 힘든 것으로 조사된다.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첨단 조리기구가 나와서 주부들의 부엌일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떠올리면 이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지금까지 재래식 부엌과 현대식 부엌을 비교할 때는 기구, 기술, 구조와 같은 형태적인 변화를 평면적으로 비교했다. 그 기구나 기술 그리고 구조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경험의 내용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부엌이 단순한 물리적인 구조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다시금 인식하고자 한다.⁴⁾ 그렇게 하면 부엌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변화의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용이해진다. 이러한 관점은 지난 100년 동안 끊임없이 변화해온 부엌의 모습과 그 특성을 새롭게 보여주는 장점을 지닌다고 보여진다.

III. 근대화와 생활개선운동

최초의 현대식 부엌을 갖춘 서양식 주택의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이었다. 한말 외국과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정치, 경제, 외교 영역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876년 개항과 함께 개항장인 부산, 원산, 인천지역에는 일본식과 서양식 주택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주택은 1884년 인천에 세워진 세창양행의 사택이라고 한다. 이 주택에는 응접실, 침실, 부엌, 식당, 그리고 오락실이 기능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었다.⁵⁾ 구한말

4) 이러한 점은 이미 이희봉의 연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이희봉, 「문화로서의 주거연구고찰」, 제33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 발표논문집(2001); 이희봉김지은, 「한국인의 식생활문화에 맞는 부엌 공간계획을 위한 현장연구」, 『환경과학연구』, 5집(1994). 그리고 2001년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에서 ‘집과 문화’를 주제로 발표한 논문들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두드러진다. 제33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참조.

5) 주남철, 앞의 논문, 11쪽.

부터 서울거리에는 서양식 건물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지만, 대체로는 외교적 목적으로 지어진 공관이나 기타의 공공건물 내지는 상업용 건물들이었다. 일반인들이 주거용으로 서양식 주택을 지었다는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⁶⁾

아마도 한국가옥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부터가 아닐까 한다. 1910년 이후 일본식 주택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신축주택 가운데 일본식 주택의 수가 더 많았다고 하는 통계가 있다.⁷⁾ 일본식 주택이 지어지면서 한국의 전통가옥을 개량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주택개량운동은 당시 지식인들이 주도했다. 1920년대 즈음해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신생활·신문화운동이 추진되었다. 이 운동을 이끈 이들의 대부분은 서양식 교육을 받았거나 해외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인습적인 사고에 젖은 생활을 타파하고 서양식 교육을 통해 도덕과 인격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자 했다. 과거와는 달리 신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의지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조선시대처럼 신분에 따라서 개인들의 지위가 결정되는 일이나, 개인의 자유보다는 가족이나 친족집단에 대한 구속이 더 앞서는 것을 극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했다.⁸⁾

이들의 신생활운동은 일상생활의 불합리한 점들을 바꾸는 일에서 시작했다. 1923년 1월 26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글을 예로 들어보면, 당시 지식인들이 주장한 생활개량운동의 일단을 알 수 있다.⁹⁾ “식생활 중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어른은

6) 기록에 남겨진 바로는 최초의 서양식 호텔 및 음식점인 손탁호텔이 1902년 정동에 세워졌다. 서양 외교관을 비롯한 한국의 정치적 명사들이 모여서 사교를 하며 서양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윗층은 고급 손님의 객실, 그리고 아래층은 보통 객실과 식당이 들어섰다. 서울특별시, 『서울육백년사 제3권』(서울특별시, 1977), 1229쪽.

7) 조성기·김일진, 『주거학』(동명사, 1983), 164쪽.

8) 신생활운동의 취지는 다음의 글에서 잘 나타난다. “數百年來의 安眠으로부터 각성함을 의미함이며 조선의 신청년이 세계의 신생활운동에 병참하기를 요구함이니 이제 그 신청년은 재래의 습관과 미신과 모든 고루한 사상의 철쇄를 전부타파한지라 구생활은 그를 구속하고 지배할 권위가 無하다. 『신생활』의 此목적은 母論 도덕적 인격을 발달하며 기본적 진보를 지배하며 기타 適宜한 사업과 충분한 사회교육과 개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각 개인으로 하여금 가정의 선량한 가족원이 되는 동시에 시간을 선히 이용케함에 在하나니 이는 즉 각 개인의 능력을 증진함이요 각 개인의 능력을 증진함은 이곳 인생생활이 可辨할 모든 가치를 발견하고 취용하는 가장 善하고 易하고 速한 방법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능력을 계발함이다.” 「권두언」, 『신생활』, 창간호(1922).

9) 『동아일보』, 1923년 1월 26일. 주남철, 앞의 논문, 13쪽에서 재인용.

어른끼리, 아이는 아이끼리 먹는 것을 없애자,” “침실에서 밥을 먹지 말고 부엌과 가까운 곳에 식당을 만들어 식사하자”라고 했다. 주택의 개량과 관련해서는 “굴뚝을 높여서 연기가 나지 않고, 부엌벽을 흰 회로 칠해 깨끗이 하고 부엌문증간에 유리를 기우고 부엌을 늘려 마루를 깔아 김치독을 두고 시렁을 매어 물건을 올려두자”고 했다. 한글학자인 최현배도 주택구조의 개조론을 주장하면서, “부엌의 위치를 잘 선정해 위생상 기능상 지장이 없고, 아궁이를 개량하고 굴뚝을 높이할 것, 집안에 우물을 파라”고 했다. 건축가인 이훈우도, “부엌을 집체의 뒤로 두고, 천장을 높여서 공기를 들일 수 있게 하라”고 했다.

1932년에는 건축가인 박길용도 주택개조론에서 부엌의 개량을 언급했다. 부엌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부엌의 위치는 언제나 내방과 밀접하며, 소주택에서는 남향으로 하기 곤란할 경우는 동향으로 할 것을 권했다. 면적은 3평 가량이 적당하고, 환기와 채광을 위해 격자창을 크게 그리고 많이 할 것을 지적했다. 설비에서도 음료설비, 취사설비, 沃湯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¹⁰⁾ 당시 그가 설계한 집을 보면, 부엌이 찬방과 연결되어 복도로 통하며 조리대 위에 후드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찬방 밑에는 지하실을 두고, 식기장과 급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최신의 설비를 갖춘 부엌이었다(그림 1 참고).¹¹⁾

이처럼 신생활운동을 주장한 지식인들은 사회제도에 대한 개혁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전반에 걸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을 개선하려고 했다. 생활개선의 모델은 근대적 국가로 알려진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의 나라들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한옥은 불편한 공간으로 단점만이 부각되어 개량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반대로 서구식의 주택은 편리하고 위생적이고 합리적인 공간배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한옥은 어둡고 통풍이 안되는 데 비해 서구의 주택의 특징은 유리창이 많아서 밝고 환풍에 신경을 써서 공기가 잘 통한다고 했다. 서구의 주택은 기능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들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 서양식 주거양식의 좋은 점을 살려 집을 짓거나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집을 신축할 때는 일본식 또는 서구식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한옥과 일본-서구식을 절

10) 박길용, 「새살림의 부엌은 이렇게 했으면」, 『여성』, 1932년 1월호.

11) 박길용, 「廚에 대해」, 1932년. 황종수, 「개항이후 한국 재래 부엌의 변천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23쪽에서 재인용.

〈그림 1〉 박길용의 새살림의 부역 설계도

충하는 형태를 취했다.

절충식 가옥이 1930년대에는 현대적인 문화주택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당시 가옥의 모습을 잘 전해주는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은 어느 잡지의 기자가 유명 인사의 집을 방문하고 쓴 기사의 일부에서 발췌한 것이다.

외모와 현관은 일본집인데, 유리창과 걸쳐있는 커튼은 분명코 양식이다. 그런데 온돌방과 부엌에 부뚜막들은 또 정녕히 조선식인 것이다.¹²⁾

이 집의 주인은 당시 신여성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이화여전의 교수이고 윤심덕의 동생인 윤성덕이었다. 그런가하면, 음악가인 계정식의 집을 묘사한 글에서도 당시 문화주택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서대문밖 연희장 주택지중에도 가장 아담한 곳, 뒤로는 금화산의 송림을 배경

12) 「당대여인생활탐방기-梨專教授 윤성덕씨편」, 『신여성』, 1933년 9월호, 58~62쪽.

으로 하고 옆으로는 애기능의 울림을 벗으로 해 장차 날려는 비달기가치 아담한 주택은 음악가 계정식씨의 주택이다. 대문을 열고 들안으로 드러섰다. 네 귀틀 가장자리 날개가치 뺏씩들고 남향한 문화주택 전면은 모다 분합을 드리우고 유리창을 해 창만 여러 제치면 바람과 일광이 맘대로 드러오게 되었다. 그리고 부엌은 뒤로 부쳐서 보이지 않고 방만이 순백의 가텐아래 조용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¹³⁾

1936년에 신축한 이 주택은 72평 대지에 18칸이며, 방은 셋이다. 방 가운데 복도가 있고 뒤로는 부엌과 목욕실 그리고 지하실이 있다. 문화주택을 규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는 유리창을 단 것이었다. 구옥이라고 하는 한옥의 단점은 어둡고 통풍이 안되는 데 비해 문화주택의 특징은 유리창이 많아서 밝고 환풍에 신경을 써서 공기가 잘 통하는 것이었다. 집안에는 응접실이 있으며, 부엌은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집안의 뒤쪽에 배치했다. 목욕탕이 집안에 들어온 것도 특징이다. 당시 사람들은 문화생활은 문화주택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새로운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한 것이 주택의 개선이라고 본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엌 개량의 필요성은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지어진 문화주택에서도 부엌은 여전히 남이 보지 않는 구석진 곳에 자리를 해야 했다. 부엌을 서구식으로 개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기술의 발달과 의식의 변화가 함께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에서 기술의 발달이란, 난방과 취사 연료의 개량을 뜻한다. 나무를 때서 취사를 하고, 난방을 하는 방법으로는 부엌을 입식으로 한다거나 실내로 옮기는 일은 불가능하다. 또한 여기에서 의식의 변화란 부엌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부엌이 여성이 일하는 공간, 여성의 전용공간으로 인식되는 한 부엌을 적극적으로 개량한다거나 가족들의 공동의 활동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힘들 수 밖에 없었다. 일제시대에 이미 입식 부엌이 소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의 부유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새로운 형태의 부엌이었다. 서민들의 주택은 여전히 난방과 취사의 연료로 나무를 때고 있었으며, 따라서 부엌은 여전히 재래식 아궁이와 부뚜막을 사용하고 있었다.

신여성들 가운데는 여성을 부엌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동

13) 「그 주택, 그 정원-음악가 계정식씨 주택-금화산아래 깃드린 비달기」, 『조광』, 1937년 9월호, 81쪽.

광』 1932년 1월호에는 신여성의 신년 바램을 적은 글이 여러 편 실려 있다. 그 가운데 이경원은 「혁명은 부역으로부터」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여성이 부역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한탄했다. “주방의 어머니 되고 충실한 ‘암담’으로만 시종하여야야 何假에 많은 공부를 다 하겠(겠)습니까.” 공부를 해서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역일과 생활이 복잡한 까닭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부역의 질박화와 생활의 단순화를 주장했다.¹⁴⁾

가정과 생활의 혁신을 준비하며 실천하고자 했던 신여성들은 가부장제 및 대가족제도의 불합리한 구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이상으로 삼은 것은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었다. 부부가 중심이 된 핵가족으로 이루어진 신가정에서 현모양처로서 남아있는 것이 당시 많은 신여성들의 바램이기도 했다. 현모양처로서의 요건으로 “(신여성들은) 경제적 관념이 두터워서 가계를 꾸미는 것이나 또는 위생관념이 깊고 사회적 교양을 받았으므로 자녀교육을 문화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점” 따위가 강조되기도 했다.¹⁵⁾ 다시 말해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역할을 가계를 경제적으로 운영하며, 집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자녀들의 교육에도 힘써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1920-30년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근대화는 서구를 모델로 삼았고, 서구적인 가족제도와 생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였다. 교육을 통해 서구적 근대를 배우고, 또 그것을 몸에 익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추구한 서구적 근대성은 한국의 문화적 뿌리와 부딪치면서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

IV. 도시화·규격화·대량화

해방 이후 정치적 불안이 6·25전쟁으로 이어지면서 피난민이 대거 발생했다. 게다가 전쟁으로 파손된 주택도 많아지면서 도시에는 주택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되었다. 특히 서울에 피난민과 이주민들이 몰리면서 주택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외국의 원조로 무상 제공되는 건축자재로 긴급 구호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했

14) 이경원, 「혁명은 부역으로부터」, 『동광』, 1932년 1월호.

15) 「신규여성좌담회풍경」, 『여성』, 1936년 2월호, 105 ~ 111쪽.

다. 정부는 서둘러 1954년부터 약 2년 동안 전국에 6,230호에 달하는 재건축주택, 복구주택, 외인주택 등을 건설했다. 1957년 이후에는 통칭 국민주택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주택들이 서울 외곽에 위치한 신흥주택단지에 들어서게 되었다. 국민주택은 해방 후 대학의 정규과정을 졸업한 전문 건축가들이 설계해 지은 것이었다. 국민주택의 기본형은 한국의 전통적인 ‘ㄱ자집’을 기본으로 해 마루가 부엌과 대각선상에 위치한 田자형으로 설계되었다. 욕실, 변소, 부엌을 개량해 배치했다. 그 뒤에는 정부가 주도해 주택설계를 공모해 채택된 설계를 바탕으로 서민주택의 형태를 규격화 시켰고, 주택의 대량공급을 꾀했다.

1958년 보건사회부 주최로 전국 제1회 주택현상설계가 있었고, 당선작들은 그 뒤에 서민주택 건설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단독주택부 1등 당선 작품을 보면, 안방·거실은 남쪽으로 두고, 현관·욕실·부엌을 북쪽으로 몰았다. 중앙에 짧은 복도를 뚫으로써 거실의 일부가 욕실과 부엌, 안방으로 드나드는 출입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줄였다. 이러한 설계의 기본방향은 개인생활을 최대한 증대시키고자 하는 데 있었다고 한다. 1959년부터 보건사회부는 전국적으로 주택설계를 공모하면서 당선된 작품들을 도시의 서민층주택을 건설하는 데 이용했다. 당시 설계조건을 보면, 가족 5인, 대지 40평, 건평 9평으로 변소는 집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러한 구상은 도시중심에서 벗어나서 외곽에 신흥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⁶⁾

젊은 건축가들이 이상적으로 설계한 국민주택이나 고급주택에서는 서구식의 가족생활, 주거생활이 모델이 되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족·주거생활이 도외시되면서 부부중심의 생활, 또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가족생활을 이상적인 모델로 삼아서 집이 설계되었다. 안방에는 부부침실의 개념이 도입되고, 화장실이 집안으로 들어오고, 욕실이 생기고, 또 입식부엌이 기본이 되었다. 현대적인 것과 도시적인 것이 강조되었지만, 실생활과는 다소 동떨어진 주거공간이 된 셈이었다. 정부의 계획과 전문가들의 이상이 일반서민들의 생활과는 맞지 않게 되자, 그 간극을 메운 것이 개인주택건설업자들이었다. 이들은 이른바 ‘집장사’ 집을 짓는 사람들이었다. 1960년대 이후 도시주택의 규격화와 대량공급에 일조를 한 것은 바로

16)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sidaesa>.

이들이었다.

개인주택건설업자들이 짓는 집들은 부엌도 화장실도 옥외에 설치되는 것이 기본이었다. 또 세를 주기 위해 부엌을 따로 지어서 두 세대가 살도록 짓는 것이 당시 도시의 중산층주택의 일반적 형태였다. 이러한 주택에서는 부엌 안에 수도시설을 갖추게 된 것만 해도 커다란 변화였다.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도시에는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우물물을 길어다가 부엌에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의 일반서민들로서는 집안에 들어온 입식부엌이 편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당시의 생활여건상 연료 등의 기술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까지도 도시에서 여전히 취사나 난방용으로 연탄이 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부엌의 구조가 연탄을 사용에 적합하도록 설계될 수밖에 없었다.¹⁷⁾

V. 현대성의 이미지: 과학과 입식부엌

한국인들에게 현대적이란 말은 서구적인 것과 직결된다. 주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식주택이란 서구의 주택을 모델로 한 것을 말한다. 물론 여기에서 서구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범위가 넓고 때로는 모호하기도 하다. 어찌되었든 주생활에서도 현대적인 것을 받아들여려는 의도가 강했고, 1970년대 이후가 되면서 아파트의 대중화에 짝해 명실공히 현대식주택의 붐을 맞게 되었다. 현대식 주거양식에는 몇 가지의 조건이 따른다. 입식생활을 전제로 하고, 부엌과 화장실이 집안으로 들어오며, 부엌은 다른 공간과 평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집안의 내부는 미국의 20세기 실용주의 미학을 상징하는 차갑고 깨끗하고 날카로움을 주는 디자인과 가구를 선호하게 되며, 유리나 스테인리스 제품 따위가 많이 사용되었다.

서울에 최초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세워진 것은 1950년대 말이다. 중암동과 마

17) 연료의 개발도 부엌구조를 바꾸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50년대부터는 취사나 연료용으로 나무와 숯의 사용이 억제되고 대신에 연탄이 주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40년대 후반부터는 토탄, 유연탄, 무연탄분, 두탄 등으로 불리는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연탄이 대량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였다. 1960년대 후반이 되면, 무연탄의 생산량이 1160만 톤이 되는데 이것은 1960년대 초와 비교하면 약 2배로 증가한 양이다. 19공탄이라고 불린 연탄이 가정용 난방과 취사용 연료로서 자리를 잡았다.

포에 아파트가 등장했으며, 사원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연립주택이 세워지게 되었다.¹⁸⁾ 그러나 현대식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서울은 물론이고 중소도시의 중심지에도 아파트가 속속 건립되었다. 공동주택의 형태가 점차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특히 아파트가 부동산투자의 대상이 되면서 그 인기는 더욱 높아졌다. 아파트 내부는 좌식보다는 입식활동이 많도록 설계되었다. 거실에도 온돌식 난방이 아니라 라지에타를 설치하기도 했다. 식사도 식탁에서 하도록 식당이 분리되고 입식부엌이 보편화되었다. 1960년대 말 입식부엌이라고 불리던 현대식 부엌은 1970년대가 되면 주방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다.¹⁹⁾ 거실의 연장선상에서 주방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부엌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점차 없어졌다. 부엌과는 달리 주방이라는 단어는 현대식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실제로도 서구식의 키친처럼 주방은 집안의 다른 공간과 차단되지 않고, 가족원들도 비교적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이것은 현대생활에서 부엌이 차지하는 위치가 달라지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엌의 이러한 변화는 다른 사회적인 요인과의 연결된다. 과거에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라면 의례 식모, 일하는 아줌마 등으로 불리는 보조여성노동자가 있어서 가사노동을 전담했다. 1950-60년대 농어촌의 가난한 젊은 여성들이 도시 가정의 노동자로 고용되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던 시대가 있었다. 부엌일을 전담하는 여성노동자가 집에 상주하므로 주부들은 실제로 부엌에서 허드렛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가 되면서 노동시장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점차 가정부로 고용할 수 있는 여성노동자의 수가 감소되면서 주부들이 직접 부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부엌이 불편하게 설계되었다고 해도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부가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었다. 도시의 중산층주부들은 그 불편함을 일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사정이 달라짐으로써 주부들은 부엌의 구조가 자신들의 요구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맞물려서 부엌과 내부의 주거공간이 생활에 편리하도록 설계된

18) 종암동의 중앙아파트는 1958년에 건축되었다. 세대당 17.2평이었으며 4층의 네 동에 총 152세대가 입주했다. 마포의 마포아파트는 1962년에 건축되었다. 서울에서는 최초의 대단지 아파트였다. 총 642세대가 살게 되었다.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sidaesa>.

19) 1930년대에 박길용은 신가정의 부엌설계에서 ‘廚’라는 단어를 사용한 바 있다.

아파트가 큰 인기를 얻어갔다.

편리함의 상징이 된 입식부엌에는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가 연결된 ‘싱크대’가 들어서 있어야 했다. 싱크대를 장착한 부엌은 현대과학의 산실인 실험실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위생적이고, 편리하고, 또 체계적으로 정리정돈이 되는 싱크대는 과학적인 식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가구이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싱크대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전문회사들이 생겨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주로 스테인레스제품을 사용해 깨끗하고 차가운 이미지를 주는가 하면, 견고하다는 느낌을 주도록 제작되었다. 싱크대를 선전하는 광고에는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부엌, 세트로 마련된 식기, 서구의 영양학에 기초해 쓰여진 요리책과 계량컵 따위가 등장했다. 이러한 광고는 현대의 주부가 만들어가야 하는 부엌과 가정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과학, 위생, 아름다움, 경제적인 여유가 현대적인 가정을 이루는 필수요건으로 등장한 것이다.

VI. 모더니빙이 의미하는 것

한국에 냉장고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1965년이였다. 그리고 냉장고가 한국인의 가정에 필수품이 된 것은 1970년대 후반의 일이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냉장고는 가정의 사치품이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냉장고를 구입하려는 가정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냉장고를 사용하면서부터 주부들의 음식장만은 크게 바뀌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부엌용품과 주부들과의 적응기간은 의외로 길었다. 처음에 가정에 들어온 냉장고는 여름에 김치를 보관하는 정도의 기능을 할 뿐이었다. 여름김치를 자주 담가야 하는 주부들로서는 냉장고가 있으면 김치를 담그는 수고를 덜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특별히 사용할 목적이 없어서 여름이 지나면 냉장고를 끄고 이용하지 않는 주부들도 많았다. 말하자면, 냉장고는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는 마루나 주방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장식품이었다.

한국인의 식생활은 서양과 다르므로 서양인의 식생활에 맞도록 설계된 냉장고는 초기에는 부엌용품으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싱싱한 채소와 생선 따위를 즐기는 한국인의 식습관은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거나 고기를 냉동시켜 두고

녹여서 먹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곤 했다. 또 도시에서는 시장과 가게가 근거리에 있어서 식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점도 냉장고의 이용율을 떨어뜨렸다. 농촌에서는 더욱이나 식재료를 가까운 밭에서 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냉장고의 활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냉장고가 식재료를 보관하는 용도로 충분히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가공식품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

1980년대 이후 도시중산층 가정의 부엌에는 냉장고, 가스레인지, 토스터, 커피머신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부엌을 장식하는 기구나 가구에서만 현대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 소비성향에서도 현대적인 특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육류와 분식류, 가공식품류, 마가린 등의 ‘서구적 식품’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증가해 ‘우리나라에도 洋風化의 생활이 오고 있다’고 평하는 이들도 있었다. 일상적인 식탁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별미로 소시지, 햄, 카레라이스, 돈까스가 자주 오르기 시작했다. 주부들은 시장에서 가공식품으로 파는 소시지, 햄 등을 구입해 자녀들의 입맛을 당기게 했다.²⁰⁾

그런가 하면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현대생활의 이미지는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한 부엌가구회사의 광고문안을 예로 들어보기로 하자. “아내는 절 위해 차를 바꾸자고 했고, 저는 아내를 위해 부엌을 바꿨습니다. 소중한 아내의 행복을 위해...”²¹⁾ 아내의 가사노동의 과중을 안타까워하는 남편의 상이 현대적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신문과 TV의 광고는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는 남편들의 모습을 널리 선전했다. 이상적인 현대적인 남편은 서구의 남편들처럼 부엌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담론을 만들어냈다.

가사노동을 부부가 분담해야 한다는 논의는 비단 상품광고의 영향만은 아니다. 오히려 여성평등의식의 고취와 함께 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시의 가정주부들은 가사노동시간은 20여 년 전과 비교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차이가 드러난다. 예전에 많이 차지했던 의생활관련 노동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가족관리시간은 증가했다. 주

20) 함한화·송도영·윤택림·윤형숙, 「서울주민의 식생활의 변천」, 『서울 20세기 생활문화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402쪽.

21) 한아름 부엌가구 인테리어 선전문구.

부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은 식생활관리였다. 1988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477명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가정노동의 가치를 평가해 발표한 자료가 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여러 가지 면에서 측정한 것이다. 요구임금에 의한 가치는 729,201 원이고, 전문가 대체 비용법에 의한 가치는 538,438 원이었다. 기회비용법에 의한 가치는 529,941 원, 주관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치는 502,391 원, 그리고 총합적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치는 420,469 원이었다.²²⁾

가정학이나 여성학에서도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가정주부들의 가사노동이 과중하다는 사실이 공론화되었다. 남편의 가사분담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되고, 사회적인 이슈로 자주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로 남편의 가사분담은 실천되기 어려운 대목이 많았다.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남녀의 취업불균형, 사회화과정에서의 남녀의 역할인식 때문에 남편을 부역으로 끌어내기 힘들었다. 남편들만이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뒤처리하는 것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현대의 부역은 상품의 광고에서나 이론적 논의에서나 온 가족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꾸며져야 하는 곳이다. 부엌가구나 부엌용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부엌이 이제 더 이상 요리만 하는 곳은 아니라고 말한다. “때로는 주부의 사무실로, 때로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휴식과 대화의 공간으로 변모한 주방, 이제 주방은 집안 어느 공간보다 아름답고 깔끔하게 꾸며져야 하며, 주부의 일손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²³⁾고 주장한다. 가족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부들의 일은 더 늘어만 간다. 주부는 일터인데, 다른 가족들은 휴식공간이므로 부역은 점점 더 여성의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항상 다른 가족들이 쉬고 편하게 느껴야 함으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전기기구의 사용 등으로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부들은 현대적인 부역생활을 위해 식사준비 외에 다른 일을 해야 한다. 아름다운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VII. 맺는말: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22) 김정옥, 「가사노동에 관한 재고찰」, 『여성문제연구』(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1991), 20쪽.

23) 하이리빙 부엌가구 선전문. <http://www.hi-living.co.kr> 참고

1980년대 들어서 우리는 더 이상 부엌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주방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되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 할 만큼 부엌공간과 시설이 달라지고 있고 또 부엌의 기능과 상징적인 의미도 변화하고 있다. 부엌은 초현대식 테크놀로지가 구현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꾸며야 하는 장소가 되어갔다. 전자렌지는 한국음식을 조리하는 데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품인데도 현대식 부엌에는 빠져서는 안되는 장식품이 되었다. 식기세척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식기는 접시보다는 대접류가 더 많고, 큰 그릇이 많기 때문에 식기세척기의 이용율이 떨어진다. 실제로 구매자들이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전주의 한 가전제품회사의 대리점 직원의 말을 인용하면, “식기세척기는 이 영업점에서는 한 대도 팔아본 적이 없어요. 안 닦이니까...수도세도 많이 나오고, 그만큼 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²⁴⁾

오븐을 겸한 가스레인지도 한국의 부엌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초현대식 부엌에는 의례 갖추어야 하는 품목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오븐을 자주 사용할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오븐이 달려있는 가스레인지는 장식용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실용성은 떨어지지만, 현대성을 갖추는 데는 필수적인 부엌기구들이 장식되어 있는 부엌을 씨스템키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주방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보다 한층 더 세련되게 들리는 이 씨스템키친은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나 주택의 부엌을 하나의 상품처럼 만들어내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사진 1 참조)

최근 한국의 부엌은 다른 어떤 공간보다 외형적으로 가장 많이 변했다고 할 수 있다. 부엌공간은 과학적이고, 위생적이며, 아름답게 변모했다. 각종 초현대적인 기구와 가구가 부엌에 들어오면서 재래부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²⁵⁾ 그렇지만 재래부엌의 편리함과 입식부엌의 편리함을 동시에 이용하는 예도 있다. 광주의 한 가정에서는 부엌을 현대식으로 고치면서도 ‘시암’이라고 부르는 수도를 부엌의 안쪽에 설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사진 2 참조). 어머니는 서서 일하는 것과, 좁은

24) 전주시 소재 삼성전자 대리점의 관리자의 말.

25) 이것은 광주시 운림동 성촌마을 한 주민의 예이다. 전라도 닛컴의 현진이네 부엌(<http://www.jeonlado.com>) 참조.

<사진 1> 씨스텝키친을 선전하는 초현대식 주방모습

<사진 2> ‘시암’ (쌈)을 현대식부엌에 끌어들인 모습

싱크대에서 김칫거리를 씻고 야채를 다듬어서 조리를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 여전히 옛날 방식을 이용하기로 하고, 딸들은 입식부엌을 주장해 마침내 절충식의 새로운 부엌이 탄생되었다고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부들이 실제로 부엌에서 생활하는 면에서는 아직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이 발견된다. 김치냉장고의 인기나 식기세척기를 외면하는 것은 한국인의 식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⁶⁾ 여간해서 바뀌지 않는 식생활은 주부들이 부엌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지 않는다. 남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쉽게 변하지 않아서 남성들이 부엌에 머무는 일은 많지 않다. 부엌은 여전히 주부의 일터일 뿐이지 가족들의 휴식공간이나 담소의 장이 되기에는 요원하다. 이처럼 초현대식 가구와 기구가 들어찬 부엌 안에서도 우리는 별로 변하지 않는 면들을 새삼 발견하게 된다.

참고자료

『여성』

『개벽』

『동광』

『동아일보』

강영환, 『집으로 보는 우리 문화이야기』, 서울: 웅진닷컴, 2000.

강인화이경복, 『한국 식생활풍속』, 서울: 삼영사, 1983.

김광언, 「정읍 김동수씨 고가옥」, 『민속자료 조사보고서』 제29집, 서울: 문화재관리국, 1971.

_____, 「한국문화의 원형을 찾아서: 여인의 에환어린 다목적 공간, 부엌」, 『한국논단』, 1993.

_____, 『한국의 부엌』, 서울: 대원사, 1997.

김분옥 외, 「우리나라 주부의 부엌관리술」, 『대한가정학회지』, 1968.

김용집, 「한국전통주거건축의 공간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김정옥, 「가사노동에 관한 재고찰」, 『여성문제연구』(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 1991.

26) 아직도 장아찌, 떡배기 된장국 등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식생활을 떠올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식생활과 관련해 변화된 것과 변화되지 않은 것을 지적한 주영하, 「‘집’과 음식행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제33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 발표논문집(2001), 105~111쪽 볼 것.

- 김철호, 「전통주거공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송도영·진양교·윤택림·오유석, 『주민 생애사를 통해본 20세기 서울현대사』, 서울: 서울학연구소, 1999.
- 신성윤, 「한국 현대주거의 사회 문화적 변화의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유영희, 「근대화과정에서 전통한옥 주거양식의 변화과정」, 『서울학연구』 7, 1996.
- 윤복자 외, 「농촌주택의 부역공간 변화에 따른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89.
- _____, 「한국주거형태 변천과정에서 본 주거학의 생태학적 개념정립-제1부 부역 변천」, 『대한가정학회지』, 1990.
- 윤복자 외, 『부역총서: 한국부역의 역사』, 주식회사 한샘 학술연구비 수혜연구, 1994.
- 윤일이, 「한국전통주거에 있어서 부역의 배연구조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동재, 「20세기의 한국소설에 나타난 근대적 집의 형성사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이성실, 「서민아파트의 부역 현황조사와 부역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이현정, 「도시주택의 부역유형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희봉, 「건축학과 문화인류학의 공동작업에 관한 연구」, 『울산공대연구논문집』, 1978.
- _____, 「문화로서의 주거연구고찰」, 제33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1.
- 이희봉김지은, 「한국인의 식생활문화에 맞는 부역 공간계획을 위한 현장연구」, 『환경과학연구』(중앙대 환경과학 연구소) 5집, 1994.
- 장보웅, 『한국의 민가연구』, 서울: 보진재, 1981.
- 정영길,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민간신앙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조성기, 「한국남부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조성기·김일진, 『주거학』, 서울: 동명사, 1983.
- 주남철, 「이조 말부터 1945년도까지의 한국의 주택변천」, 『한국건축학회지』 14:38, 1970.
- _____, 「한국의 전통적 생활공간」, 『한국식문화학회지』 2:2, 1987.
- 주영하, 『음식전쟁 문화전쟁』, 서울: 사계절, 2000
- _____, 「'집'과 음식행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제33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1
- 지순 외, 「농촌부역의 개선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2)」, 『대한가정학회지』, 1991.
- 현대주택편집부, 「식사휴식이 함께 하는 주방문화」, 『현대주택』, 1985.
- 함한화·송도영·윤택림·윤형숙, 「서울주민의 생활의 변천」, 『서울 20세기 생활·문화변천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황중수, 「개항 이후 한국 재래부역의 변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Appadurai, Arjun(*ed.*), *The social Life of Things: Commodities in Cultural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Friedman, Jonathan(*ed.*), *Consumption and Identity*. Harwood Academic Publishers, 1994.

Lofgren, Orvar, "Consuming Interests," J. Friedman(*ed.*), *Consumption and Identity*, Harwood Academic Publishers, 1994.

주요어

부역, 주생활의 현대화, 주거문화, 모던리빙, 현대성